

# 근심·걱정이 욕심 중의 욕심

## 욕심을 부리면 피가 썩고 생명이 죽는다

###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였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었는데 흠을 빚어서 아담을 만들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해와를 만들었다는 거짓말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높으신 곳에 계신 분이요 사람이 말할 수 없이 낮고 낮은 곳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고 감히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도 없는 것으로 완전히 장벽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은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조건 죽게 되어 있으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다음에 영혼이 천당 간다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시간 시간 여러분들에게 논 하지만 성경이나 불경 상에는 사람이 하나님이었다고 똑똑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 불경에는 “불심을 품으라.” 그런 말씀이 쓰여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면 하나님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또한 불경과 성경 상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이 되는 것으로 이 말씀의 뜻은 바로 전에 사람이 하나님이였다는 뜻의 말씀인 것입니다.

###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그런고로 전에 사람이 하나님으로 세상에 태어났는데 다시금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이 되는 것입

니다. 그런고로 성경이나 불경 상의 구원론은 바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되어야 구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짜 구세주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를 믿어야 구원을 얻고 자기를 믿어야 천당에 간다고 속였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치도 의사의 자격이 있어야 의사 노릇을 하고 선생 자격이 있어야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요 면장 자격이 있어야 면장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하늘나라에 들어 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자격을 빼놓고 덮어놓고 예수만 믿으면 하늘나라 천당 간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고로 하나님이나 하늘나라 들어가서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말씀은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이나 들어가서 인간은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아담과 해와가 하늘나라가 되는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았다고 해야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흠으로 빚은 사람이라면 에덴동산에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고 쓰여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똑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이 세상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과 똑같은 것을 말했고, 아담과 해와 하나님이 하늘나라가 되는 에덴동산에서 살았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아 틀림없이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해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였다는 증거



구세주 조희성님

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하나님의 외아들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대로 텔레비전 본 사람들은 이제 알겠지만 죽은 사람의 뼈만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살만 붙으면 남자 여자 갈라지느냐?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말을 한다면 피가 되는 그 영이 바로 여자의 영으로 이루어지면 여자의 몸이 되고 남자의 영으로 이루어지면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가지고 살아 다 썩어서 없어진 다음에 뼈만 가지고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흠을 빚어서 아담을 만들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해와를 만들었다고 쓰여 있는 말은 꾸민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여러분들이 흠을 빚

어서 사람을 만든 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게 된 다음 이제 하나님께서 흠을 빚어서 또 안 죽는 아담과 해와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흠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면 안 죽는 아담과 해와를 많이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고로 오늘날 흠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말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는 아담과 해와 하나님이 한 몸이었었는데 마귀에게 점령되는 순간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로 변했던 것입니다.

### 선악과는 곧 나라의 주체의식

그러므로 사람은 본시 하나님이였으나 마귀 영에게 점령당하는 순간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을 해야 그 성경이 풀려 나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을 해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씀과 짝이 맞는 것입니다.

사람이 전에 하나님이였다가 되어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씀에 해당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은 전에 사람이 하나님이였다는 의미가 되므로 전에 하나님이였다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짝이 맞는 말이 되고 이치가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오늘날 성경을 마귀새끼들이 제멋대로 해석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이와 같이 쓰여 있는데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면 아담과 해와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므로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면 하나님도 먹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 하나님이 선악과가 되는 마귀의 영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됐는데 먹고 싶어서 먹은 것이 아니라 마귀한테 점령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고로 마귀한테 점령당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마귀보다 좀 더 지혜스럽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고로 마귀에게 점령을 당해가지고 원래 나라의 의식이 하나님의 영이었으나 마귀의 영이 나라의 주체의식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영이 되는 선악과를 먹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 욕심이 죄

선악과라는 것이 마귀의 영이 틀림없는 것이 뭐냐면 선악과라는 말 자체가 성경 말씀인데 성경 말씀은 영적 말이고 영적 과일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과일이 나가 영이 되는 것입니다. 영은 영인데 죽이는 영인고로 마귀 영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의식이 바로 선악과요, 나라의 의식이 바로 원죄요, 나라의 의식이 바로 마귀의 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주체의식이 바로 선악과가 틀림없다는 것은 뭘 봐서 알 수 있냐면 성경이나 불경 상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죄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욕심이라는 것이 곧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라는 것이 나라의 의식의 열매인고로 열매가 죄니까 나라의 의식이 죄요, 원죄가 선악과인고로 나라의 의식이 틀림없는 선악과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의식이 선악과라는 걸 모르는 것은 학문도 아니요, 종교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고로 나라의 의식이 바로 마귀의 영인고로 나라의 의식이 생각만 하면 피가 썩고 욕심을 부리면 피가 썩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만 하면 얼굴에 시커멓게 기미가 끼는 것입니다. 썩은 피가 끼는 현상인고로 근심-걱정을 하면 피가 썩는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근심-걱정하는 마음은 욕심대로 되지 않는 일을 되게끔 욕심 부리는 마음이 근심-걱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걱정이 욕심 중에 욕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욕심만 부리면 피가 썩는다는 것은 욕심이 죄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죄 때문에 죽는다는 말은 욕심 때문에 죽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면 피가 썩는 것은 생명이 썩는 것이요, 생명이 썩는 것은 바로 생명이 죽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1992년 6월 28일 주님 말씀 중에서 정리 원현옥 기자

###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 《2장 이삭의 하나님》

## (3) 이삭의 아내 될 자를 구하는 아브라함

### (3) 이삭의 아내 될 자를 구하는 아브라함

아브라함 137세에 이주해온 브엘세바의 남쪽 네게브에는 ‘브엘라해로이(Beerlahairoi)’라는 우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우물의 이름이 그의 아내 사라와 연관되어 있는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라는 여종 하갈의 꾀박을 피해 네겝 광야를 떠돌던 일을 아들 이삭에게만 들려줬지, 남편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들 이삭에게 들려준 것은 장차 아들이 장성하여 결혼으로 아내를 얻게 되면 그녀를 잘 돌보라는 교훈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 그런데 사라가 자신의 남편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전하지 않은 까닭은, 남편 아브라함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자책하고 괴로워할까 염려한 탓이었습니다.

### 이삭은 일부일처(一夫一婦)를 다짐함

이삭이 모친상을 치른 지 3년이 지나도록 돌아가지 않은 어머니로 인하여 슬퍼했습니다. 해질녘이 되어 한가할 때면 늘 브엘라해로이 우물가에서 회회하면서 어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전하기를, "말기(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가 자녀를 낳았으며, 여덟 아들 중에 브두엘은 말 리브가를 낳았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22장 20-24절)

머니 사라를 그리워했습니다. 아마도 그때 이삭은 아내를 얻게 되면 오직 한 여인을 두되 두 여인을 두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생전에 모자의 정이 두터웠던 아들 이삭을 보아왔던 터라 이삭의 외롭고 슬픈 심정을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대신하여 위로받을 수 있는 이삭의 배필감을 생각하기에 이르자, 불현듯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습니.

고향 인근에 살고 있는 동생 나홀에 대한 근황을 어떤 이가 자신에게 전해주었던 일이었는데(창22:20), 그때에는 ‘외아들 이삭을 반제로 바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리아 산에 갔다가 온 직후 나홀의 소식이 반색하며 찌찌찌 물어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기억을 되살려보니 분명히 나홀의 아들 중에 누군가가 딸을 두고 있다는 소식도 들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홀의 손녀가 있다고 소식을 전한 어떤

이는 바로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 정상에서 내려와 산기슭에서 기다리던 두 종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브엘세바로 향했습니다(창22:19). 그리고 아들 이삭에게는 “그랄에 있는 집으로 가서 천막을 거두고 어머니를 모시고 종들과 함께 가족을 이끌고 브엘세바로 오나라.”고 지시했던 것입니다.

### 내 아들 이삭의 배필은 내 고향의 내 친척 가운데서 구하라

본토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서 유랑하는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아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아내 사라가 죽은 지 3년째 되며, 아들 이삭이 마흔 살 되는 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을 맡아 관리하고 있는 제일이 많은 종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내 아들의 아내 될 처녀를 가나안의 처녀 가운데서 구하지 말고 내 고향에 가서 내 친척 가운데서 구해주게.” 나이 많은 종은 브엘라해로이에서 하라까지 800킬로미터의 거리를 다녀오려면 두어 달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온갖 귀한 선물을 낙타 열 마리에 싣고(창세기 24장 10절). 출처: https://st-takla.org/Gallery/Bible/Illustrations/Bible-Slides/OT/Genesis/Bible-Slides-genesis-118.html

그 현명한 종은 이삭의 배필감이 될 여자가 나홀의 손녀로 짐작하고, 주인 아브라함에게 “신부 될 여자가 나를 좇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야 됩니까?”하고 물었습니다.

이는 혹 배필감을 구하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그 동안에 늙은 주인이 세상을 하직하고 없을 경우도 대비한 물음이기도 했으며 또한 여자 쪽에서 데릴사위로 요구하면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종에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내 아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돌아가지 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친척의 땅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내게 맹세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줄 것이라고 하였으니 주께서 천사를 자네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네.”

종은 아브라함의 이런 부분을 받고 낙타 열 마리와 결혼차림 즉 예물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 안젤라